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4월 17일(금)
..(음력 3월 25일)..

Пятница
17 апреля 2020г.
№ 15(11688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식품세트 100개를 준비해 전달했다.
관련 기사 3면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

사할린주 정부 보도에 따르면 4월 14일 사할린주에 <백트르> 감염병 진단 특별연구소가 결과를 전달한 가운데 사할린 주민 6명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다음 날, 1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1명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4월 15일 현재 사할린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진자는 총 19명이고 6명은 완치되어 퇴원했으며 13명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고 이중 3명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의료진은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들을 24시간 관찰하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공공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변경 방침에 따라 4월 14일 주지사의 지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몇몇 조치와 방역 강화 방침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정 조치는 4월 15일부터 노선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확대 실시하고 사할린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사할린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역 물품들은 약국과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정교회 부활절, 온라인 예배로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교구의 악시이 대주교가 이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성직자들이 교구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 정부 측이 전했다. "우리의 성전들마다 예배가 이뤄질 예정이나 부활절 축하에 교인들은 건강을 보존하고 주변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러주십시오." 라고 대주교가 전했다.

부활절 예배는 OTB방송과 유튜브 방송으로 전송되며 생방송은 4월 18일 23시30분에 시작된다.

사할린주, 임금 지급을 위한 첫 무이자 대출

사할린의 기업가인 알렉세이 첸(정)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공공급식지의 경영자로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사할린에서 이런 방식의 지원은 4월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얼마 전 사할린 기업개발재단으로 16명의 기업인들이 방문하여 2개의 신청서를 제출해 절차 밟았고, 대출 1건이 이뤄졌다.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밖에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월급이 필요하다. 그들은 월세도 내야 하고 식품도 사야 한다. 그래서 지원기금을 찾게 되었다."고 개인 사업가가 말했다.

무이자 대출은 목적에 따라 사업주체자들에게 직원들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최대 1백만 루블리까지 대출된다.

사할린주 코로나바이러스19와 투쟁하는 의료진들에게 7,700만 루블리 지원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확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 직원들에게 특별 수당으로 자금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에 비상사태 조치 속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해서 위험과 희생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각료 사이트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첫 단계로 연방 행정지역 간에 약 100억 루블리가 배당되었고 이 중 39억 루블리는 보건부, 교육과학부, 연방 의료생명공학부 기관 산하 부서에 배당되었다.

4월 13일 추가수당으로 450억 루블리가 배당되었고 이 중 310억은 예비로 남겨두어 감염병 확산 조치에 따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할린주는 의료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추가수당 지급으로 연방 국고로부터 7천700만 루블리를 받는다. 이 자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이다. 그렇긴 하나 사할린주의 감염병의 확산 상황은 대체로 아직까지 낙관적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수도 낮은 편이다.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지원 자금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의료진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각각 9억1200만 루블리와 6억3500만 루블리에 해당된다.

4월8일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하며 코로나19와 투쟁의 최전선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문가들에게 추가수당 지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금은 4월부터 시작해 배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지급은 3개월로 정해졌다. 추가 지급액은 코로나19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하며 종사하는 의사들에게는 8만 루블리, 일반 의료진, 일반 간호사, 수간호사에게는 5만 루블리, 의료계 하급직에는 2만5천 루블리가 지급된다. 응급의료기관(구급차) 직원도 추가지급을 받는데 의사는 5만 루블리, 수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운전사는 각각 2만5천 루블리를 받게 된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한국 21대 총선, 민주·시민 당 180석 확보

2020년 4월 15일 한국 국회 21대 총선이 치러졌다. 한국 통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면서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국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점에 차이가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방자치기업 운영, 한인 문제 고민

홈스크한인회 김금옥 회장 소개

2019년 12월에 홈스크 한인회 회장으로 김금옥(타치아나 니콜라예브나, 1957년생) 씨가 선출되었다.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 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홈스크한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은 홈스크가 고향이신지요?

- 아닙니다. 돌린스크에서 태어났고 회계학 교육과정을 받고 돌린스크 급식공장에서 경리-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40년 전에 홈스크의 남자와 결혼해 이곳에서 살게 되었죠.

- 회장님의 경력이 궁금합니다.

- 홈스크에서도 사무 경리직에서 일을 해왔고 '티브코프'(소비자 어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해 전산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죠. 하바롭스크 소비에트 협동 상업대학(회계 전공), 1993년에는 노위시비르스크 상업대학(경제학, 회계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물론 대학들은 통신으로 공부했죠.

1993년에는 남편과 함께 상점을 개업하고 1994년부터는 완전히 개인사업가로 활동을 했어요. 장사도 해보고, 택시회사

도 운영해보았고 도매업도 했습니다. 2010년대 중순에 모든 활동과 개인사업을 그만두고 4년 여간 쉬었어요.

2018년에 홈스크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 기업인 <마스터>주택 공공경리 회사를 이끌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년째 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2000년에 제가 러시아-미국 교육센터(사할린)에서 교육과정을 받았고 그 교육센터를 통해 러시아 전국 <젊은 러시아 리더>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해 최종 단계 참가자로 선정되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 미국을 방문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 프로그램은 2002년에 전개되었는데 사할린의 미국교육센터에서 이 프로그램 참가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기업인으로서 영어로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사실 영어를 잘 몰라서 교육센터에서 제 논문을 번역했습니다. 제 주제는 <사업에서 여성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수천 명이 참가했는데 선정된 최종 참가자 100명이 2002년 7월에 미국으로 가서 여러 견학을 했고 특히 민주화에 관심을 가졌죠. 사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제가 유일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야 별로 나뉘어 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사회적 분야, 법안 작성, 생태학 등에 관한 그룹이죠. 저는 <여성 리더십>그룹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4개 주를 방문했는데 특히 오하이오 주에 많이 머물렀고 워싱턴에도 가보았습니다. 우리는 입법·행정, 비즈니스 등의 관계 대표들과 만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했죠.

- 러시아 그룹 속에 사할린 한인으로서 어떠셨는지요?

- 네, 제 공식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어서 우리를 마중하는 사람들이 좀 놀라기도 했죠. 러시아 명단에 한국이름? 사할린 한인이라고 하니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인 이름으로 제가 좀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선정된 이유는 발표할 글 내용 때문이기도했죠. 그 당시 제가 <기업인 소드루제스트워(기업인 연합회)>비영리 단체 회장으로 활약했는데 단체 활동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인정을 받은 거죠.

- <기업인 연합회>는 어떤 단체였어요?

-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였어요. 2000년에 설립되었는데 처음엔 회원이 1800명 정도였어요. 4-5년 후에는 400-500명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시작 단계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법적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관련 법안, 특히 단일화 된 세금 등, 법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내에서 기업인 단체 20여 개가 활동했는데 나중에 저희 단체도 포함해 사할린주 기업인 연맹을 조직했어요.

저희 <기업인 연합회>단체 경우에는 우리가 군인모친위원회, 여성협회, 기업인 연맹 등과 협력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회원 총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단체가 존재하는 14년간 제가 계속 회장을 지냈습니다. 선거는 4년에 1번 했죠.

운영위원 7명, 그리고 14명으로 구성된 발의 그룹 - 총 21명이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활약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회원 중

상업 분야, 서비스 분야, 법률 상담, 건설, 교통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분야별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했는데, 1주일에 한 번 만나 여러 행사를 준비, 또는 권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했습니다. 경연대회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인사업가들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개인기업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도 거의 빠져나갔어요. 개인기업에 대한 법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단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져 201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 사회단체를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홈스크한인회 회장으로 출마하셨는지요?

- 작년부터 홈스크 이산가족 담당 신연자 씨가 한인회의 여러 행사에 초대하셨고, 저는 낮은 한인회 활동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민족연합회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과 만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한인회 사업에 대한 비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해볼까'하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선거회의에서 홈스크 한인회 회장으로 활약하신 박영순 회장님이 저를 회장 후보로 추천해 출마했습니다. 박영순 회장님과 협력해 함께 일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남아 도와주게 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전 위원들과 새로 뽑힌 위원들 반반으로 섞여있습니다.

우리는 1월에 성공적으로 음력설 행사를 개최했고 이번엔 좀 다른 형태로 - <러시아>영화

오락센터에서 다과회와 공연을 펼쳤는데 무료 입장이었고 한글학교 학생, 홈스크 예술학교 학생들의 공연에 방문객들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한글학교 이진선 선생님의 활동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연자 씨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홈스크 구역 체호브 한인회와도 서로 협력하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사도 같이 하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님과 유골봉환 사업 상담도 했고 그의 여러 일을 고민합니다.

- 2년 전 <마스터>지방자치기업 지도자로 나섰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아직 사장 대행직을 하시는지요?

- 홈스크시장이 사장 제안을 했을 때 이 기업은 이미 부도가 난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했을 때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홈스크 구역이 거의 반 년간 시장님이 없었습니다. 구역을 염려하는 좋은 전문 지도자가 드디어 선출되고, 승인되면 우리 기업도 존재할 수 있고 저도 드디어 임명 승인이 떨어질 거라 봅니다.

우리 <마스터>는 지방자치 기업입니다. 2018년에 제가 <마스터>에 입사할 때 목욕탕 2곳, 시립 공동묘지 3곳, 공공교통(시내 및 교외 버스 32대)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공동묘지는 제 책임이 아니고 목욕탕과 버스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분야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활동과 업무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모저모

사할린 810 명의 참전용사들 대통령의 축하를 받다

사할린의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를 받게 된다고 연금재단이 전했다.

러시아 연방 연금재단 사할린 지부는 해마다 개별 축하 편지 준비를 위해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월 초에 <러시아 우편>회사는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을 맞아 사할린과 쿠릴의 전후방 참전용사들에게 축하의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사할린주에 현재 참전자 목록에는 연금재단을 통해 연금을 받고 있는 810명이 들어있다.

주소지는 배송 전까지 현주소로 갱신된다. 전체 참전자 중에서 대조국전쟁의 참전자는 65명, '레닌 그라드 봉쇄시기' 메달을 받은 사할린 주민 27명, 게토와 포로수용소의 미성년이었던 76명이 축하를 받고 그의 대부분이 후방 노동 참전자로서 642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문을 받는다.

810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получают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президента на Сахали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лучают поздравление от президента РФ, сообщает ОПФР.

Отделение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информацию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персональных поздравительных писем.

В начале мая "Почта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зошлёт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письма ветеранам к 75-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списке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810 ветеранов, получающих пенсии по ли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Адресная база будет актуализироваться до самого момента доставки.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ветеранов поздравления получат 65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27 сахалинцев, награждённых медалью "Житель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76 бывши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узников концлагерей и гет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категория из всех получателей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сланий — труженики тыла — 642 человека.

남 사할린 · 쿠릴 열도 해방 75주년 기념 로고 공모전 개최

사할린 주두마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 부가 공동으로 전승 75주년을 기념하는 <영원한 공적> 아동 그림 공모전과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5주년을 기념하는 우수 로고(상징) 공모전을 펼친다.

<영원한 공적> 아동 그림 공모전의 주요 목적은 재능을 가진 아동들을 발굴해 지원하려는 데 있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미술학교 아동부 학생과 예술학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두번째 공모전의 목적은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에 대한 군사적 활동 시기를

반영하는 로고 제작에 있다. 이 경연에는 모든 주민과 사할린의 방문객도 참가할 수 있다.

두 경연의 전체 목적은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해방과 대조국전쟁 시기 영웅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참전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조성하며, 도덕적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아동의 예술성을 발전시키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함양하는 데 있다.

경연의 조직과 실행을 위해 조직위원회와 참가자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우승작을 선정할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었다. 경연에 출전할 작품들은 다음 주소 konkurs75@bk.ru로 접수한다.

경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주최측의 사이트 (<http://Sakhalin.er.ru>)에서 문의할 수 있다.

관련 교육기관의 학업 과정이 중단되고 통제된 상황으로 인하여 주최 측은 공모전 기한을 2020년 6월1일까지 연장했다.

Конкурс на эмблему (логотип), посвященный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ой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ятся конкурс детского рисунка "Вечный Подвиг", посвященный 75-летию Победы и конкурс на лучшую эмблему (логотип) посвященную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8면에 계속)

사할린주 한인협회, 노년층을 위해 100개 식품세트 준비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식품세트 100개를 준비해 전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쌀, 메밀, 식용유, 연유, 소고기 통조림, 파스타, 생선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식품세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식품세트가 필요한 노인들의 명단은 사할린주 베테랑협회에서 작성하였고, 한인협회에서 마련된 식품세트를 13일(월) 오후 자원봉사단에 전달하여 젊은 의료봉사자들은 원로



들의 집을 방문해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이번에 주한인회에서 식품세트를 준비하는 데 개인 기업인 유 유리사와 유 나탈리아가 크게 도우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할린주 청소년지도청 드미트리 스메칼로브 청장 권한 대행은 현재 코로나19 투쟁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사할린주 내 여러 곳에서 노년층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전화 8(4242) 500-090로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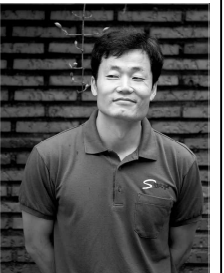
(취재: 이에식 기자)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속은 부드러운데

마흔 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무조건 잘 생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울컥할 때가 있다.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찌란 말이나 하고 대나무 숲에 가서 고향이라도 지르고 싶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가곤 했다. 교문을 나서는 꼬마들에게 몇학년인지, 우리 아이를 아는지 물어보노라니 주위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며 자기 아이를 기다리던 젊은 엄마들이 긴장하는 것 같았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교문에서 물러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몇 년 동안 녹색어머니회 활동도 하고 (아버지인데!) 운동회 때 이어 달리기도 하고, 집에 놀러온 아이들 친구 간식도 해주고, 커다란 세발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얼굴을 알린 덕분에 이제는 학교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아이들이 커버려 마중 나갈 필요가 없어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안심하기는 일렀다.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새로 나온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담당 사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속삭였다. 어린이실에 덩치 큰 남자가 있으면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대출을 해서 읽으시면 좋겠다고. 완곡했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다.

대출을 해오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그렇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인상 때문에 동화를 쓴다고 하면 두 번 보며 가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억울한데 그게 과연 내 탓일까?

거울을 한참 보았는데 결국 내 탓 같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양쪽 처지를 다 이해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미래의 희망뿐이다. 나이가 들면 산타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은데 수염도 잘 안 자라고 살도 찌지 않는 체질이어서 걱정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4월 20일부터 미용실 및 충기 상점의 영업 허용

4월 20일부터 사할린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11개의 경제업종에 대한 재개를 허락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이 4월 13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려졌다.

재개가 허락된 업종은 미용실, 뷰티숍, 화장품 및 향수 매장이다. 사냥철을 앞두고 충기 및 탄약을 파는 특수 소매점이 재개된다. 오토바이와 이틀 부품 특수 소매점도 재개된다. 운전학교도 열어 실습이 재개되고 이론은 원격으로 진행한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이런 소매점들이 1천 개가 등록돼 있다.

"사할린주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몇몇 경제업종의 재개를 허락하고 사업의 통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들은 최선의 안전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영업을 재개하려는 법무인들의 요구도 이와 동일하다. 우선 기업인들은 러시아소비자감독청 사할린 지부에 통보를 하고 이에 따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첫째 조건은 시간 엄수, 둘째 조건은 거리 두기 엄수다. 미용실과 상점에서는 고객행렬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일은 고객과 시간 예약에 따라 실행해야 하고, 직원들을 위한 손소독제 준비 및 개인 보호 장비는 필수다. 가능한 한 밀폐공간에서 공기감염이 없도록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권한다."고 러시아 소비자감독청 사할린 지부의 올라 폰투소와 부장이 밝혔다.

각 기업가들은 단순치 않은 감염병 상황 속에서 적합하게 일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중소 사업가들에게는 재개까지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있다. 4월20일(월)부터 몇몇 업종의 사업 재개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한국 21대 총선, 민주·시민 당 180석 확보

(1면의 계속)



당선 스티커 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실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0.4.15

(서울=연합뉴스)

21대 총선 투표율이 66%를 넘었다. 총선 투표율이 60%대를 돌파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60.6%) 이후 16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40대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했고, 보수·진보 진영이 상대의 자극에 결집해 투표율을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성공적인 정착도 투표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전국 투표율은 66.2%로 잠정 집계됐다. 4년 전 20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인 58.0%를 훌쩍 뛰어넘었다. 투표율만 놓고 보면 1992년 14대 총선(71.9%) 후 28년 만의 최고치다.

전국 권역별로 살펴보면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68.6%) 세종(68.5%) 서울(68.1%) 전남(67.8%) 경남(67.8%) 순이었고,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 곳은 인천(63.2%) 제주(62.9%) 충남(62.4%) 등이었다. 부산(67.7%) 대구(67.0%) 전북(67.0%) 경북(66.4%) 등이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

(한국 언론자료에서)

한국 대구의 '엠모니터' 벤처 기업이 개발한 진단 키트로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여부 20분 만에

대구 벤처기업 엠모니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20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경상북도 대구 의료재단에 따르면 새 시험관(in vitro) 진단 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수출 허가를 받은 새로운 진단 키트(Isopollo COVID-19 detection kit(real-time)·Isopollo COVID-19 detection kit(premix)는 일정 온도에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등온증폭기술(LAMP)을 적용해 진단 시간을 크게 줄였다.

엠모니터 진단키트(Isopollo COVID-19 detection kit(premix)는 샘플을 실험관에 넣고 간편하게 장비 없이 핵산을 추출해 총 4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자 양성일 경우 시약의 색깔이 파란색, 음성인 비감염자는 보라색으로 나타나 누구나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Isopollo COVID-19 detection kit(real-time)의 진단은 20분 만에 가능하지만 별도의 샘플 채취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 코에서 점액질 샘플을 추출하고 점액질로부터 RNA를 추출한 후 RNA에서 다시 핵산을 추출하는 데 30~40분, 추출된 핵산을 증폭하는 데 20여 분이 소요된다. 핵산이 추출되면 20분 만에 진단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출시된 분자진단 제품은 대부분 진단에 6시간 남짓 걸렸다.

이번 코로나19 새 진단키트는 엠모니터가 제품 생산·판매를 맡고, 해외 판매는 대구첨복재단 입주기업인 인코아가 지원한다.

이영호 대구첨복재단 이사장은 "20분만에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기술이 한국, 특히 대구에서 개발돼 매우 기쁘다"며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대구첨복재단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100 пакетов с продуктами передали сахалинским пенсионерам

Островные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во вторник раздачу бесплатных пакетов продуктов. Их доставляют пенсионер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акете – крупы и консервы. Всего подготовили 100 таких наборов.

– Мы положили рис, гречку,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сгущенное молоко, тушенку, макароны, рыбные консервы и кукурузу. Нам

сказали, что бабушки ее очень любят,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 Когда приходит беда, мы должны объединиться. Нам помогли спонсоры, наши бизнесмены из диаспоры. Все мы объединились и сделали такой небольшой вклад.

Списки нуждающихся в поддержке пенсионеров предоставили в областном совете ветеранов. А развозят продукты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 Волонтеры сегодня очень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о и в районах. Это не только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движений острова. Мы их поддерживаем. В этой акции помогли ребятам с транспортом, на котором они развозят продукты, – отметил и. о.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Связаться с добровольцами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8 (4242) 500-090. Также попросить помощи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о следующим номерам:

- 8-800-201-00-99, (4242) 240-075 – горячая лини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4242) 510-073 – волонтеры ОНФ;
- 7-924-881-68-28 и 31-81-80 – волонтерский центр в «Единой России» и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 8-800-300-6503 – горячая линия Минздрава.



Юбилей гения

Весенним днем 16 апреля 1950 года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в семье учительницы и механика родился мальчик, которого назвали княжеским именем Игорь. Когда ему исполнилось 3 года,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в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город Заозерный, который мальчик и считал своей малой родиной. Там он рос, увлеченный спортом, книгами и авиацией, как многие совет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ишло время, он успешно закончил школу, а затем поступил в Красноярский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Экономика и организация энергетики», получив сразу два блестящих образования: инженерн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Как же они пригодились ему в дальнейшем – выстраивании карьеры и судьбоносных решений!

По окончании института, по распределению, 22-летний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попал на Сахалин, в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и проработал на острове, не изменяя ему,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он прошел путь от рядового инженера до начальника котлотурбинного цеха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Там же, в Тымовском,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стал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ем райкома комсомола. И нашел любовь всей жизни – Валентину Лапшину.

Вскоре энергичного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го вожака тымовской молодежи пригласили на ра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ав.отделом рабочей и сельской молодежи обкома ВЛКСМ. Через год – в областной комитет КПСС, инструктором отдел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Через пять лет, в 1985 году,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с семьей уезжает в Невельск –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рисполкома. И с тех пор всегда – лидер, первое лицо... В 1991 году возглав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исполком.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от 24 апреля 1995 года, через неделю после 45-летия, назначается гла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тем дважды выигрывает губернаторские выборы.

Я так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ю вехи биографи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1950-2003), чтобы мы вспомнили, как ковались судьбы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Пошагово, по ступенькам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познавая на практике все премудрости профессии. И когда Игорь Павлович становит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региона, ему уже ведомы почти все секрет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партийной и управленческой работы. Он знает, как и куда вести область, или, как любил говорить, «вверенную мне территорию»...

Судьба жестоко испытывала его на прочность. Не прошло и двух недель со дня назначения на пост гла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ак разразилось небывалое по разрушительности землетрясение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унесшее жизни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людей.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вместе с коллегами, а также с Сергеем Шойгу (МЧС России), Сергеем Богданчиковым и Степаном Землюком (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 и сотнями друг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добровольцев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спасение пострадавших. Город Нефтегорск стерт с лица земли. Здание школы, жилые дом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руины... А выживших надо было срочно вытащить из-под завалов, накормить, вылечить, дать кров...

И теперь я думаю, что и все дальнейшее в жизни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было фактически Нефтегорском, только растянутым во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е. 90-е годы – перестройка, точнее, разрушение огромной державы, из-под обломков которой нужно было спасать людей, поднимать экономику и строить новое будущее.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заводы, бюджетники месяцами не получали зарплату, детей учили полуголодные учителя, шахтеры бастовали,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и котельные стояли без топлива, в домах сидели без тепла и света... И губернатор Фархутдинов каждый день упорно разруливал чрезвычайные ситуации по всем районам и отраслям. При этом в Москве, Лондоне, Токио продвигал нефтегазовые проекты. Договаривался с федералами о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ах в островных портах;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остового перехода на материк, нов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т.д.

Параллельно как экономист и политик размышлял и просчитывал, как быстрее выйти из кризиса и по какому пути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 острова? По при-



меру четырех стран-Драконов АТР? По Европейскому пути (Нидерланды)? По американскому опыту (Аляска и Пенсильвания)? И это были не праздные мысли на пустом месте. Через пять лет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ы губернатором Игорь Павлович Фархутдинов сумел не только приостановить кризисные явления в экономике области, но и заложить основы ее успешного рывка вперед – через нефтегазовые проекты. В 1999 году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к Первой нефти, добытой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Все, что делал И.П. Фархутдинов, он делал системно, потому что мыслил стратегически. Если строить мост на материк, считал губернатор, значит, на остров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ложить асфальт от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Холмского портов

до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Сахалина – Охи. А также задействовать БАМ, увеличить грузопотоки через Транссибирскую магистраль, достроить шоссейные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от берегов Татарского пролива до западных границ. В идеале – перетянуть основные грузы из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Азии в Европу через Сахалин и Сибирь, зарабатывая немалые деньги в казну на транзите. Для него нефтедоллары были лишь возможностью, основой для начала масштабног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своих научных трудах док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Игорь Павлович Фархутдинов все расписал: как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как сбалансировать межбюджетные финансовые отношения регионов с центром, как эффе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фтедоллары, чтобы превратить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в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ое место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По примеру Пенсильвании, которая из разрушенного сталелитейного региона за 30 лет стала центром электронной и научно-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20 века встречала в звании «Лучшего города США для семей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те тяжкие перестроечные годы И.П. Фархутдиновым был введен в обиход простой, но очень емкий термин – «комфортность среды проживания», который звучал в его докладах в Госдуме,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в Минстрое, Минтранспорте... В этих словах Игорь Павлович материализовал всю свою любовь к человеку, к жизни. Под этим термином сахалин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подразумевал комплексную застройку, включающую жилье улучшенной планировки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инженерными сетям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 скверов, парков; асфальтовые дороги и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сервисные и деловые центры; детские и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 Все то, что нужно современному человеку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Но у нас по-прежнему отчет ведется только по квадратным метрам новостроек, построенным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ветхого жилья. И не более. Поэтому во многи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жилье дома, как правило, строятся без сопу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оят домики, а вокруг грязь или автомобильные заторы, пустыри или болота... Как думают – так и строят... Вот почему Фархутдинов терпеть не мог временщиков, особенно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 сознанием временщика». И приходит мысль: никому не будет лишним поучиться у выдающихся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но вспомнить и согласиться с Галиной Павловой (директор нефтегазо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Фархутдинова) и Валерием Гореглядом (сенатор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й зампред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в начале двухтысячных), которые считал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гением. Ведь только гениям под силу решать не только сегодняшние глобальные задачи, но и заглянуть на десятилетия вперед!

16 апреля, в день юбилея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Фархутдинова, нашего народ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почта его память, вспомним родителей Варвару Васильевну и Павла Фархутдиновича, поблагодарим семью – Валентину Ивановну и Максима Игоревича – за сохранение наследия гениаль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переломной эпохи.

КИМ САН СУН
10 апреля 2020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авящий блок получил 60%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К

Правящий блок во главе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одержал уверенную победу на состоявшихся 15 апреля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21-го созыва. Выборы во всех избирательных округах признаны состоявшимися,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заполнены все 300 мест в одномандатн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арламенте - 253 по одномандатным округам и 47 по партийным спискам. По итогам обработки 100% бюллетеней у правящего блок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80 мест - 60% числ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16 лет получила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мест в парламенте, что позволит ей приним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законы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ех, которые касаются пересмотра Конституции. Они требуют одобрения 200 законодателей. У оппозиционного блока во главе с Объединённой партией будущего 103 места - 34,3% состав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6 мест у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о 3 - у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и Открыт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5 получили независимые кандидаты. Прошедшие выборы фактичес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оценку работы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а.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явка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составила 66,2%, включая 26,69% избирателей,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ах 10-11 апреля. Это самая высокая явка за последние 28 лет.

Участники видео-саммита АСЕАН+3 приня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14 апреля лидеры десяти стран-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государст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 также РК, Китая и Японии провели специальный видео-саммит. Он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 итогам двухчасовой дискуссии принят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зафиксирован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поощрять деловые обмены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а. Предло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гарантировать свободное перемещение бизнесменов, имеющих справки об отсутствии вируса,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ов саммита. Заявл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поощре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лучивших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РК. Среди них признание, помогающ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ценить состояние своего здоровья, система Drive thru, когда граждане проходят проверку на наличие вируса или пользуются услугами, не выходя из машины. Вместе с тем, решено создать резервы самых необходимых медицинских средств, а также сформировать фонд АСЕАН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пандемии. Мун Чжэ Ин оценил ситуацию в РК как постепенную стабилизацию, рассказав о конкретных мерах, предпринят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н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поминал о готовности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а. Подробный план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тран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 на встрече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СЕАН+3.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в 18-ти зарубежных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РК обработали бюллетен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в 18-т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РК в 17-ти странах с 1 по 6 апреля, впервы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выборо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збирате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отправить заполненные бюллетени в Центральную избирательную комиссию, но не смогли этого сделать из-за отмены авиарейсов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вируса COVID-19.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172 тысяч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обладающих избирательным правом. Лишь 23,8% из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выборах, поскольку в 91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в 55 странах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не работали из-за закрытия границ и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передвижение внутри стран.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создала реагент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COVID-19 за 20 минут

Венчурная компания M-Monitor, находящаяся в городе Тэгу, разработала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набор COVID-19, способный подтвердить наличие вируса COVID-19 в течение 20 мину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Фонде содействия передовой медицине города Тэгу и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новый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реагент in vitro одобрен к применению Корей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Новый метод позволяет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быструю диагностик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обычным, при котором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результата требуется около шести часов. (RKI)

Бывший зампосла КНДР ст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м депутатом

Еще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он был заместителем пос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Лондоне и прощавлял строй КНДР и вождя, а теперь он - народный избранник Южной Кореи и отчаянно критикует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изывая Сеул проявить жестк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15 апре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оялись выборы нового состава парламента страны. Уже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многие победители, где без сомнения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необычных фигур является 55-летний избранный депутат Тхэ Гу Мин, хотя в мире он больше известен как Тхэ Ён Хо.

Согласно обнародован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бывш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дипломат Тхэ, представлявший в округе Каннам Сеула ведущую оппозиционную Объединённую партию будущего (ОПБ), достаточно уверенно победил кандидата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им Сон Гона. Тхэ Гу Ми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ал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бежчиком из КНДР, который превратился в депутата на новой родине. Особенно уникально то, что он был избран не по партийным спискам, а в одномандатном округе, проведя полноценную предвыборную кампанию.

Экс-дипломат КНДР,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смог за сравнительно короткий срок быстро приспособиться к правилам политической игры на Юге. Так, он ведет свой весьма популяр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канал на YouTube, не стесняется открыто критиковать политику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ое старается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Пхеньяном. В ходе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Тхэ выпустил ролик, зачитав рэп с призывом голосовать за него и пообещав южнокорейцам "вернуть их страну" и облегчить жизнь. Кроме того, за четыре года своей жизни на Юге Тхэ смог заработать более полутора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 таковы размеры его имущества, которое он задекларировал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а на выборы. Соратники по партии говорят, что "не считали деньги в кошельке у Тхэ" и не знают его доходов, но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он смог обеспечить себя и семью тем, что читает лекции, а также издал ставшую бестселлером в Южной Кореи книгу о своей работе в КНДР.

Многи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бывший северянин сможет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района Сеула, где проживаю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огатые южнокорейцы, но, суд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ему поверили.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главную роль все же сыграла не столько личность Тхэ, сколько его партий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В этом районе Сеула обычно голосуют за консерваторов, от которых и баллотировался экс-дипломат КНДР, и недолюбливают демократ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интересы менее богатых слоев.

Так или иначе, но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страница, когда бывший северянин стал народным избранником на Юге.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властям КНДР, которые после побега Тхэ сильно критиковали его и даже угрожали, это всё сильно не понравится. Сам новый депутат не



Фото: Скриншот с видео

скрывает, что намерен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на меж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будет "всеми силами помогать освобождению народ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помним, что Тхэ Гу Мин прибыл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августе 2016 года. Он сбежал с семьей из Лондона, где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посла КНДР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Этот побег удивил многих, так как до этого Тхэ был известен многим западным журналистам как "рупо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Западе", где он постоянно регулярно рассказывал о достоинств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истемы. Тхэ также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еспечении пребывания в 2015 году в Лондоне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Чен Чхоля, который известен как большой любитель музыки и поклонник Эрика Клэптона. Тхэ потом написал книгу про КНДР и про свою работу, сказав, что решил бежать, так как власти КНДР отзывали его, не позволив его сыну завершить учебу в англи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Тхэ Ён Хо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на Юг сменил, как это часто делают перебежчики, имя на новое - Тхэ Гу Мин. Фамилия осталась прежней, а иероглифы нового имени означают "спасающий народ". По словам избранного депутата, так он решил показать, что будет бороться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рода КНДР. Тхэ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роработал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НИИ, аффилированном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ой, но затем покинул институт, так как его критические взгляды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разошлись с линией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которое стало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Тхэ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также жаловались, что косвенно правящие структуры делали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он не особенно широко фигурировал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ам же Тхэ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вер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во глав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Число повторных заражений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зросло до 116

В Южной Корее еще на пять человек воз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пациентов, у которых после выздоровления было вновь зафиксировано инфицирова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ом. Общее число повторных заражени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13 апреля составило 116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заявила глава Центра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и контролю за заболеван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н Ын Ген.

По словам Чон Ын Ген, 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продолжают вести изучение этих случаев, но пока не могут определить причину повторных заражений. Подавляю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вторных заражений приходится на главный очаг COVID-19 в стране - город Тэгу (48 человек) и провинцию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35).

"Среди повторно заболевших м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20-29 лет и 50-59 лет, но



Выходящих из зоны досмотра сразу встречают сотрудники минздрава Кореи и отправляют к пунктам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присутству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озрасты", - пояснила она.

Хотя каких-то официальных выводов о причинах повторных заражений пока сделано не было, но среди местных экспертов доминирует мнение, что, строго говоря, имело место не столько "повторное заражение", сколько "повторная активизац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Мы продолжае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применяя различные методы",

- отметила Чон Ын Ген. Она заверила, что вся статистика по поводу подобных ситуаций будет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зрачной и будет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для СМИ.

В целом же ситуация с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должает улучшать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водят масочный реж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зменения внесены в Указ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введении режима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и некоторых мерах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Новые правила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с 15 апреля 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все автобусы, которые выходят на линию. Это касается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ша общая задача, 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жителей –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Все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оставаться здоровыми. Поэтому будем предпринимать для этого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лучае, если в автобусе кто-то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без маски, водители имеют право остановить движение и не начинать его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арушение не устранят. Об этом, в частности, сообщ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14 апреля на встрече с коллективом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чиков в регионе МУП «Тран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Работники предприятия рас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решение, так как водители и кондукторы вынуждены близко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с пассажирами и обязательно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поможет обезопасить всех.

Еще один пункт Указа губернатора обязывает все компани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е 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обеспечить дезинфекцию автобусов.

Сахалинцы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себя средствами защит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 информации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дефицита масок в регионе сейчас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Защитные средства доступны как в аптеках, так и в магазинах.

Еще один обсерватор откры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Его оборудовали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организовали круглосуточное нахождение островитян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ибывают в регион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Здесь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они будут ожидать результатов анализ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О создании нового обсерватора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нд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Все финансовые расходы взяла на себ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 инициативой передачи базы выступ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рыбаки, инвесторы.

– В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наши островные бизнесмены-рыболовладельцы не хотят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Мы с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люд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десь находиться,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 отметил депутат облдумы, член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Дмитрий Пашов. –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наш пример станет стимулом для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бизнеса на Сахалине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Всего в комплексе 300 мест. Комнаты рассчитаны на одного, двух или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Люди, находящиеся на обсервации, смогут смотреть телевизор и пользоваться Wi-Fi. Также им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бесплатное питание.

– Это здание гостиничного типа, в котором очень удобно разделять потоки пассажиров разных рейс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люс – удаленность от центра города. Кроме того, эта база имеет собственную охрану. Ну и микроклимат здесь благоприятный. Хорошие комнаты, отличные условия,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ила Тен.

Отметим, также в планах президента фонд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Александра Кана друг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цев. К примеру,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ализует на острове акцию в поддержку нуждающихся – передает продукты наборы семьям, ветеранам и инвалидам.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звернуть обсерватор на базе Олимпия-парка. Он способен вместить до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за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официально увеличен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зменения област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нести поправки еще в январе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 итогам 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второго ил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теперь составляет 250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нее эта сумма была немногим больше 204 тысяч. Оформить льготу могу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у которых малыш появился на свет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 поясн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защиты Елена Степанова.

Напомним, изменились и услови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Раньше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едназначалась мамам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Сейчас этот критерий исключен и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се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у которых первенцы рождены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Одно из обяза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 прожи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менее одного год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еред рождением (усыновлением) ребенка.

Чаще всег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используют эту выплату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в том числе, на ремонт жилья, либо приобретение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роме этого,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пла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приобретение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для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За счет капитала также можно получать выплаты: ежемесячно по 5 тысяч рублей, ежеквартально – 15 тысяч и одновременно – 30 тысяч рублей.

С начала 2020 года гарантийные письма на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з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уже получили 179 семей, за второго или последующих – 554 семьи.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выплат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ли МФЦ.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тмечают, заявление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мер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подать дистанционно, позвонив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минсоцзащиты: 8-800-201-00-99.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будут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ать учебный год

Островным школам рекомендовано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на учеников, провести коррективную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сделать акцент на изучении основных предмет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сегодня на областн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совете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Школам предложили по некоторым учеб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аттестовать детей по оценкам тех четвертей, когда они учились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А изучение новых тем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еренести на следующий учебный год. Объем домашнего задания опреде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рмами СанПиН.

–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рекомендовало регионам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ть учебный год – без последней четверти для учеников 1-8 классов. Но это крайняя мера. Мы пришли к решению,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для нашей области она является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й, – отмети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 областном педсовете затронули также тему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учеников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ов. В районах со спокой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у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ов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очетать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 очными занятиями в классе. При этом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т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ся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Основную волну ЕГЭ перенесли на две недели – с 25 мая на 8 июня. А девятиклассника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аттестата достаточно сдать экзамены только по обязате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и математике. Что касается Всероссийских проверочных работ, то каждая школа должна определить их даты и форм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 онлайн-педсовете напомнили, что из-за пандемии вс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 в том числе, последние звонки и выпускные вечера – под запретом. Возможно,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еренесут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 Педагогам сейчас нужна поддержка, ведь их нагрузка выросла из-з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ереложить свои привычные программы в новый дистанционный формат.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зывает всех родителей морально поддержать учителей, которые от всей души хотят дать все лучшее своим ученикам, – подчеркнула глава островной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Напомним,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8 800-201-22-80.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ЕГЭ ГИА можно по номерам: 8(4242) 46-59-60, 46-59-93.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абочие дни с 9 до 17 час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вновь открыть салоны красоты

С 20 апрел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бираются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по 11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прекратилась из-за пандеми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13 апре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решить работать парикмахерским и салонам красоты, магазинам косметики и парфюмерии.

В преддверии охотничьего сезона возобновится роз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оружием и боеприпасам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газинах.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приобретать мотоциклы и детали для них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Кроме того, разрешат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в автошколах, при этом теорию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реподавать дистанционно.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коло 1 тысячи та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 Нам удастся сдержи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слабить ограничения для бизнеса и разрешить некоторые вид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бязаны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вс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Требования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которые собираются возобнови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едины. Сначал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ю необходимо уведомить Управлени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луч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едписание.

– Первое требование – защита временем, второе – защита расстоянием. В магазинах и парикмахерских не должно быть очередей. Работа должна вестись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между клиентами необходим временной промежуток. Обязательно наличие средств дезинфекции и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рекомендуем приобрести рециркулятор, чтобы обеззараживать воздух в помещении, – поясн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Кажд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должен адекватно оценить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работать в условиях непрост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У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есть неделя на подготовку –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по некоторым вид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с понедельника, 20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ятся к прохождению паводков

Запас воды в снеге отмечался в пределах средних многолетних значен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планирован и проводится комплекс необход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здана группировка сил и средств.

Вскрытие рек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происходит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апреля,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в конце марта – начале апреля.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ожидаетс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апреля – начале мая. Толщина льда на большинстве сахалинских рек составляет 20-35 сантиметров, что в пределах обычных значений.

В целях оперативного полу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паводковой обстановке задействовано 22 гидрологических поста. Для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здан финансовый резерв и резерв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В период прохождения паводка спланирована работа 64 оперативных групп по е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ю.

Комплекс мероприятий позволяет снизить риски подтопления территорий в случае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гидр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При засоренности русел в период максимального весеннего половодья возможен выход воды на пойму из низких берегов.

Особая готовность в селах Лесогорск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Покровка, Сокол, Сосновк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Чир-Унвд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города Ани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ЧС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оминает о правилах в случае угрозы наводнения или паводка.

Получи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общение, следует отключить газ и электричество. Если уровень воды поднимается медленно, можно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спасения имущества, перенести на верхние этажи или чердак ценные вещи, вывести животных.

Нужно предупредить соседей, помочь детям, старикам и инвалидам покинуть опасное место. Необходимо занять верхние этажи, чердаки, крыши зданий и быть готовыми к эвакуации.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следует выходить в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при этом учитывается направление вероятного развития паводка.

С собой необходимо взять документы, деньги, ценности, теплую одежду, сапог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воду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редметы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медицинскую аптечку.

Попав в воду, следует сбросить с себя теплую одежду, обувь и отыскать поблизости плавающие или возвышающиеся предметы. Ими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о прибытия помощи.

Необходимо избегать поездок на машине по залитой дороге – может снести течением. Если вы оказались в зоне затопления, а машина сломалась, необходимо покинуть транспорт и вызвать помощь.

Единый номер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 112.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획특집

부산 : 시와 열정의 항구 3. 자갈치 시장, 소음과 침묵의 대화

부산의 대표적 전통 시장인 자갈치 시장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이 시장이 위치한 남포동은 주먹만 한 굵은 자갈들이 해안가에 깔려 있는 아름다운 어촌이었다. 어민들이 작은 고깃배로 잡은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들이 해안 일대에 하나둘 생기면서 시장이 형성되었고, 1970년대 초반에 정식 시장으로 개설되었다.



부산항 남쪽에 위치한 자갈치시장은 총 4,841㎡ 면적의 갈매기를 상징하는 건물로 건물 안팎에 700 곳이 넘는 점포가 밀집해 있다. 1층에는 해산물 점포, 2층에는 식당이 있다. 자갈로 덮인 어촌 해안에서 오랫동안 난전을 이루던 상인들이 자금을 모아 1972년 정식 시장으로 개장했다.

얼마 전 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 감독으로 선임된 야콥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부산이라는 도시 공간 자체를 전시장으로 꾸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자갈치 시장을 꼽았다. "이 시장의 펄떡이는 에너지, 큰 선박과 기계들이 움직이는 항구, 좁고 경사진 골목들"과 "사람들이 생선을 손질하고 사고파는 모습이 '무대 뒤의 삶'을 보는 것처럼 흥미로웠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직위원회는 그가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산의 정체성을 찾아낸 데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예술을 무대 밖으로 끌어내, 부산 사람들의 생활 공간과 함께하는 참여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 이 도시를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온 예술 감독이 고작 몇 번의 부산 방문으로 인구 340만 명이 넘는 이곳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낸 것이다.

그가 어떻게 부산을 만났는지 상상해 본다. 이 도시가 그만을 위해 특별히 예지력을 주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는 평범한 여행자로 시작해 자신의 편견을 부단히 수정하며 부산에 대한 안목을 넓혀갔을 것이다. 이제 그가 지나갔을 직한 길을 따라가 보겠다.

시장으로 가는 길

낮선 도시를 여행할 때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힘을 빼기보다 우선 가까이에 있는 높은 곳에 올라 시내를 조감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 도시의 지리와 문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콥 파브리시우스도 아마 이 뻥한 권고를 받아들여 용두산에 높이 118m로 지은 등대 모양의 부산타워에 올랐을 것이다. 그는 전망대 꼭대기에서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바다를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산 같은 영도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맑은 날엔 영도의 오른쪽 옆으로 일본 대마도가 보인다는 말에 솔깃해 먼 바다를 한참 바라보았을 것이다. 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가파른 구릉 사이로 굽이굽이 이어져 있는 길을 보며 자신이 살았던 마을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자신이 발밑으로 굽어본 크고 작은 배들이 쉼 없이 들락거리는 부둣가를 향해 용두산 비탈길을 수색하듯 걸어 내려갔을 것이다. 그가 우선 목표로 삼은 곳은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자갈치 시장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아마 보통의 부산 사람들처럼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 시장에 갔을 것이다. 부산역에서 자갈치 시장역까지는 세 정거장이다.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고, 표정을 엿보고, 알아듣진 못해도 말소리를 듣는 것이 부산을

느끼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시장은 부산역에서 산책하듯 걸어도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길을 걸어본 것은 세 번째 방문 때일 수도 있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 대신 한 블록 안쪽의 차이나타운 골목길을 지나 대청동으로 이어지는 고갯길로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이곳 정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평범하다 못해 누추하게 보이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어온 부산 사람들의 지난한 삶의 풍경을 담고 있다는 생각에 길을 걷는 내내 그의 카메라는 분주했을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던 시장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것은 도로의 표지판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냄새다. 비린내라는 이 독특한 냄새는 아직 퇴화하지 않은 인류 공통의 후각 언어를 일깨운다. 자갈치 시장이라고 하면 영도 대교 아래 건어물 시장에서 충무동 새벽 시장까지 대교와 바다 사이에 늘어선 모든 상가와 노점을 지칭한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자갈치 시장 축제도 그 범위 안에서 벌어진다. 시저의 명언을 연상케 하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 축제의 성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말해 준다. 상인들은 장을 보러 온 흥 많은 손님들을 위해 며칠간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에서 먹거리 무료 시식까지 시골벽적이고 아기자기한 행사들을 벌인다.



해운대 미포항에서 한 할머니가 하역을 마친 생선들을 크기와 종류별로 선별해 상자에 담고 있다.

이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곧 어린 자식을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거친 바닷바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하루 종일 부둣가에 쪼그리고 앉아 그날 떼어온 생선을 팔았다.

거친 역양으로, 흥정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사정하듯, 때로는 싸울 듯 언성을 높여가며 경쟁적으로 손님들을 붙들었다.

펄떡이는 에너지의 중심

이곳을 처음 찾은 관광객이라면 당연히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부산 사람들이 자랑하는 한국 최대의 수산물 시장을 몸소 느껴 보고 싶으리라. 그는 그 시작을 동쪽 끝에 있는 영도대교 옆 건어물 시장으로 삼았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녹진하게 배어 있는 건어물 상가를 돌며 자갈치 시장에서 풍기는 냄새의 진원지를 이곳으로 특정했으리라. 멸치, 오징어, 새우에 각종 생선포와 김, 미역, 조개 등 잘 마른 해산물들이 한 가로우면서도 부지런한 상인들의 손끝에서 한 번 더 햇살과 바람에 몸을 말리는 건어물 상가 골목을 돌아 나오면 자갈치 공판장이다.

이곳은 하루 종일 활기차다. 해질 무렵 일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면, 새벽녘까지 두 번 열리는 경매를 위해 연안에서 막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들을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들로 더 분주해진다. 경매가 시작되면 언제나 물이 흥건한 바닥에 줄지어 늘어놓은 각종 생선들과 그보다 더 활기찬 상인들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 눈치껏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의 한 해 수탁고는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호 계속)

이창기(Lee Chang-guy 李昌起)시인, 문학평론가
안홍범 사진

출처: <https://koreana.or.kr/>

[우리말로 깨닫다]

쌍기역 이야기

쌍기역은 이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기역을 겹쳐 놓은 것이기에 '쌍'이라는 말을 붙였겠지만 쌍(雙)은 한자어입니다. 굳이 우리말 자음의 이름을 만드는데 한자를 쓰는 게 좋을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된기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된소리로 나니까 된기역인 셈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남북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겁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쌍기역은 기업 등에서 특강의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어휘가 성공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끼, 깡, 끈, 피, 끈, 꿈, 꼴' 등의 어휘를 제시하고, 그에 맞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쌍기역이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를 한 느낌도 듭니다만, 그 덕분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쉽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제시한 7개의 어휘가 성공의 조건으로 여겨지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과 같은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인지 7을 강조합니다만,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7가지 성공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어휘를 담은 느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성공을 위한 쌍기역을 고르라면 우선 '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힘들수록 꿈을 꾸어야 합니다. '끼'는 타고 난 것처럼 말하지만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솟기가 없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끼는 원래 기운의 의미입니다. '기(氣)'를 강하게 발음한 것입니다. 없는 끼를 굳이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바꾸고 싶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움직여 보기 바랍니다. 기를 모으면 끼가 됩니다.

'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피를 부리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피가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피를 부리는 것은 다른 이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을 미루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피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생각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피입니다. 그리고 보니 피 중에서는 안 좋은 것도 많네요. 대표적으로 '피병'을 들 수 있습니다. '잔피'도 자기를 망가뜨리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용기를 내라는 '깡', 좋은 모습을 만들라는 '꼴', 좋은 사람을 널리 만나라는 '끈' 등은 잘 정리해 보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종종은 이렇게 숫자로 정해진 어휘의 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쌍기역이 아니라 기역도 나은도 다 가능할 겁니다.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를 골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의와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한편 쌍기역 발음은 '팍' 막혀있는 느낌입니다. 팍 막혔다가 터지는 음인데, 이 발음이 없는 언어가 많습니다. 일본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 중 하나가 바로 된소리입니다. 서양언어에서도 된소리의 발음은 쉽지 않습니다. 혀끝에 힘을 주어 막는 음이기에 강조의 느낌이 있습니다. '팍'이라는 단어나 앞에서 언급한 '팍'의 느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손을 꼭 쥐고, 팍 잡은 느낌입니다. '깡아내고, 꺾고, 끌어낸' 느낌이 있습니다. '꼴'이라는 말의 느낌은 어떤가요?

쌍기역, 된소리 기역은 막힌 느낌도 있지만, 막힌 것을 뚫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 생기고, 피도 나오고, 꿈도 생기지 않을까요? 끝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꿈을 깨뜨리지 말고, 꼭 이루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Главная цель конкурса рисунков "Вечный Подвиг" направлена на выявле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одарённых детей. И в нем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учащиеся детс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школ, школ искусств.

Цель второго конкурса – разработка эмблемы (логотипа), отражающего период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Участие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могут уж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любой житель или г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нечно, общая задача этих конкурсов,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и о геро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формирование уважи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ветеранам, развитие нравств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качеств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вкуса детей, воспитание чувства любви к Отечеству.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создан оргкомитет и жюри для оценки работ участников и определ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ные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konkurs 75@bk.ru, а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о конкурсе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организатора: Sakhalin.er.ru

В связи с со сложившейся обстановкой и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ем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яде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длили сроки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до 01 июня 2020 года.

'사할린섬' 책 박물관, <온라인 전람회> 기획 개최

'사할린섬' 안톤 체호브 책 박물관이 온라인상에서 방문자들을 초대한다.

본 기관은 <온라인 전람회> 기획을 실시하는 가운데 박물관 직원들이 제작한 몇 개의 동영상으로 박물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과 역사적 소재를 설명한다.

방문자는 6개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 <'사할린섬' 책>, <체호브 가정의 의료기기>, <존키에르 등대의 기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선박 조타륜>, <19세기 말-20세기의 보물함>

<'사할린섬' 도서 출판물> 등이 있다. 이들 동영상은 유튜브와 박물관 홈페이지 (<http://chekhov-book-museum.ru/news/post/1276/>)에 들어가면 쉽게 접할 수 있다.

4월 한 달간 이와 관련 한 주제들로 더 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문자들은 상호작용 퀴즈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박물관 측 직원들이 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방문자들에게는 동영상 시청으로부터 1일 내에 박물관 홈페이지에 자신의 댓글을 남기도록 권하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첫 5명에게는 선물도 증정한다.

가상의 방문자들을 위한 <온라인 전람회> 기획 외에도 3개의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호브의 사할린>, <사할린의 고대 전통수호자들>, <사할린섬으

로 날 테러다쥐> 등을 시청하고 평가를 남길 수 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Музей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запустил проект "Экспонат-онлайн"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зовет в гости в Сети. В учреждении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 "Экспонат-онлайн". В небольших видеосюжетах сотрудники рассказывают истории предметов,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о музее.

Зрители уже 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шесть роликов: "Книг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Медицинские предметы семьи Чеховых", "Рама от маяка Жонкиер", "Штурвал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в.", "Сундук конца XIX – XX веков", "Издания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ни доступны на видеохостинге YouTube или на [сайте учрежде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в течение апреля выпустить ещё ряд похожих сюжетов.

Кроме того, зрител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викторинах. Чтобы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 от сотрудника музея, надо посмотреть видео. После этого пользователю предлагается оставить свой комментарий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учреждения,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выхода ролика. Первые пять человек, правильно ответившие на вопрос, получают подарок.

Кроме проекта "Экспонат-онлайн" для виртуаль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предлагают три экскурсии: "Чеховский Сахалин", "Старообрядцы на Сахалине" и "Впустите меня на остров". Их также можно оценить на сайте учреждения, сообщает ПС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